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선림의 애꾸눈’... 추사, 신랄히 비판



〈영해타운첩〉에 수록된 추사 편지.

그레진 모습이 우습게 느껴집니다”라고 하였다. 아마 추사의 막힘없는 불교관이나 경전의 이해에 놀란 영남 스님의 태도를 이리 표현한 듯하다.

이어 추사는 “그 사람의 천품은 참으로 좋지만 들은 것이 모두 그 모양으로 황당한 것들이었다는 자평을 초의에게 말한 것이다. 이 무렵 백파의 선리 문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는 당시 불교계의 그릇된 편견을 “요즘 선림에서 애꾸눈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동요 시키는 것이 기괴한 말뿐이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라고 할 정도였다. 백파가 자신의 선리에 대한 견해를 보냈지만 추사는 백파의 견해를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초의 또한 〈선문사변만어〉에서 백파의 선리에 그릇됨을 지적하였고, 추사는 초의를 옹호한 바 있다.

제주 적거에서 차에 의지했던 추사는 “차에 대한 일은 앞의 편지에서조차 누차 이야기했지만 작은 찻차 몇 십 편으로는 얼마간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100원어치만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 하였다. 쓸쓸한 적거지에서 추사를 위로했던 차는 추사의 일용품 중에 가장 소중한 물품이었다. 아울러 대흥사에서 쓴 늦게 탄 찻잎으로 작은 찻차를 만든 사실도 함께 밝혀진 셈이다. 만류는 초의의 제자로, 추사와 교류했던 대흥사 승려이다. 실제 〈영해타운첩〉에는 “만류가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장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추후에 편지를 전해 준 영남에서 온 스님은 4일 만에 추사와 이별을 고한 듯, 그와 나는 학문적 교감을, “(그 사람의) 뜬 구름 같은 황당한 말은 대략 타파한 것이 있는 듯 합니다만 그의 놀란 듯 눈이 휘둥

백파의 견해 그릇됨 지적  
초의 또한 백파 선리 비판  
대흥사에서 찻차 만든 것 밝혀져

其眼似瞠乎爾 更覺一笑 其天分極好而所得聞者 皆如許荒禿 近日禪林中 瞞却人動 輒奇怪耳 重呵重呵 茶事前書亦有鑿及而小團數十片 恐不支幾時 供限百圓可以買取則似好 再深商之 如何如何 泐餘姑留不宣 七月二十日 泐 万休有書 今未及答 當追付 及此意也

박아 편에 보냈다는 편지(7월 16일)는 지난 호에 소개한 바 있거니와 4일 만에 다시 차를 재촉하는 편지를 연이어 보낸 셈이다. 추사에게 초의의 편지를 전해 준 영남에서 온 스님은 4일 만에 추사와 이별을 고한 듯, 그와 나는 학문적 교감을,

“(그 사람의) 뜬 구름 같은 황당한 말은 대략 타파한 것이 있는 듯 합니다만 그의 놀란 듯 눈이 휘둥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두통의 편지는 이미 박아 편에 부쳤습니다. 영남의 스님이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다가 무엇을 보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뜬 구름 같은 황당한 말은 대략 타파한 것이 있는 듯 합니다만 그의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진 모습이 우습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천품은 참으로 좋지만 들은 것이 모두 그 모양으로 황당한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선림에서 애꾸눈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동요 시키는 것이 기괴한 말뿐이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차에 대한 일은 앞의 편지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작은 찻차 몇 십 편으로는 얼마간도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 100원어치만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7월 20일 늑만휴가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장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추후에 보내겠습니다. 이 뜻을 전해 주십시오.

(兩角書 已付朴雅矣 嶺嶽今又告歸 不知其何所聞而來何所見而去也 其浮雲荒唐之說 略有打破者

# “사람의 마음 울리는 종소리는 내 화두 깨달음의 길이죠”

## 50년 외길 걸은 원광식 주철장(성종사대표)

2012년 12월 25일 대만 불광산사에서는 불타기념관 낙성식이 열렸다. 부처님 치아시리를 모시기 위해 10여 년 간 공사 끝에 모습을 드러낸 수십만 평의 장엄한 건물 사이로는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글라스를 쓴 채 이 종을 바라보던 한 노인에게 불광산사 회주 성운 스님은 “훌륭하게 종을 만들어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노인의 표정은 마치 장성한 딸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표정처럼 밝지만은 못했다. 대만 최대 범종을 만들기 위해 15개월 동안 자식 종아리에 화초리 들듯 직접 망치를 두드리던 ‘정’도 있지만 이제 세계에도 한국 범종의 소리를 본격적으로 알리려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 노인은 50년간 종 하나에 인생을 바친 중요 무형문화재 112호인 주철장 기능보유자 원광식(72) 성종사 대표다. 용광로의 열기와 같은 한여름 날씨가 막 물러오는 5월 중순, 원 대표의 작업장인 충북 진천 성종사(聖鐘社)를 찾았다.

7000평의 부지에 2.5m짜리 용광로 22개를 갖춘 성종사. 푹푹푹 소리가 들리는 드넓은 작업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정자에서 원 대표를 만났다. 원 대표는 굳은살이 잔뜩 박힌 손을 내밀며 “뭘 이런 곳까지 찾아오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국내 범종 제작 1인자로 꼽히는 그는 “대만 불광산사에 대만 최대 종을 만들어주셨습니다”라고 말하자 가슴 속에 품었던 종 이야기를 막힘없이 풀어냈다.

눈 한쪽 잃은 만큼 더욱 열정 쏟아  
원 대표의 종 만들기는 1963년부터였다. 중학교를 마치고 자동차 정비를 배웠으나 흥미를 못 느낀 원 대표는 군대 제대 후 21세가 되던 해 할아버지 원덕중 씨와 8촌 형 원국진 씨가 운영하던 ‘성종사’에 들어가 기술을 전수받았다.

원 대표에서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다. 한창 기술을 배워가고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1969년이였다. 거푸집에 용광로를 기울이는 순간 1000도가 넘는 쇠물이 튀어 한쪽 눈을 잃고 말았다.

“결혼도 곧 했겠다. 젊은 나이에 눈을 잃고 나니 세상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종 만드는 일을 접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잡자리에 들면 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원 대표는 종과의 인연을 쉽게 끊을 수는 없었다. 종을 만드느라 한쪽 눈까지 잃었기에 더욱 제대로 된 종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더 강렬했다.

그는 1970년 종 만드는 현장에 돌아왔다. 수덕사가 광복 후 최대 규모의 종 제작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이때 원 대표는 머리를 깎고 대웅전 옆에 작업장을 만들어 종 제작에 꼬박 3년 동안 불철주야 매달렸다. ‘종소리가 30리를 간다’는 수덕사 종의 탄생이었다.

“아침 예불과 저녁 예불에 빠짐없이 참여했어요. 좋은 종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처님 법도 더 많이 퍼지겠지 하는 생각이 잘 만들어야겠다는 신심이 생겼습니다. 법회를 하고 타종식을 하는데 울리는 소리가 정말 제 마음에 환희심을 찾아내게 했습

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수덕사 종을 계기로 원 대표의 기술은 입소문이 났다. 1973년 8촌 형이 사망하자 그는 성종사를 인수했다. 성종사는 처음에는 교회종과 학교 종까지 만들었지만 원광식 대표가 인수하며 범종 전문 제작사로 변신했다. 원 대표는 1975년 범어사 범종을 제작하며 고암 스님께 ‘범산’이라는 범명을 받기도 했다.

### 밀랍주조기법 연구에 7년 매달려

1960년대에는 전쟁 직후로 사찰이 종이 많지 않았다. 이후 경제가 활성화되며 종 주조 주문이 쇄도했다. 1985년 광복 40년 기념으로 만든 보신각 종도 원 대표의 작품일 정도로 그는 국내 최고 범종 제작자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원 대표는 가슴이 항상 답답했

### 1963년 군 제대후 종만들기 시작해 쇠물 튀어 한쪽눈 잃는 시련 겪어

### 1970년 수덕사 종제작 인생 전환

### 3년 머리깎고 불철주야 심혈 쏟아

### 7년 연구로 밀랍주조 개발

### 8000여 국내외종 제작한 ‘명인’

### 대만 불광산에 최대 범종제작 수출

### 태국지사설립... 중국·베트남에도

다. 1000년 전 옛 장인들이 만들었던 그 종소리를 재현하지 못했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옛 선조들의 종 제작 비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일본으로 갔다. 일본 절을 방문해 일제가 빼앗아간 신라·고려시대 종 5개를 실리콘으로 복제해 이 중 1개를 주물기법으로 복원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그는 신라시대 종을 제작할 때 사용되던 밀랍주조 기법에 몰두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조선 중기 이후 맥이 끊겨 국내 어디에도 관련 문헌과 기록이 없었다.

원 대표는 결국 직접 만들어보자는 마음을 먹었다. 그는 종을 만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밀랍과 기름을 배합해 만든 초로 종 모형과 문양을 제작, 외부를 흙으로 둘러싸 열을 가해 초를 녹인 뒤 이 흙 거푸집에 쇠물을 붓는 과정을 반복하며 하나씩 깨달아 갔다. 도가니 속의 열을 고르게 유지하고 불순물의 유입을 막는 방법과 고른 합금을 만들어내는 비법도 찾아냈다.

그러나 흙 거푸집이 1200도의 쇠물을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리기 일췌였다. 쇠물 온도를 견디며 공기가 빠져나가는 흙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송실대 박물관에서 우연히 동경(銅鏡)을 만든 흙틀을 보고 ‘바로 이거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주 일대




직접 종을 만드는 원광식 대표의 모습.



최근 주조한 대만 최대 범종인 불광산사 범종.



##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을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중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오.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世界 法王 & 僧王 推戴委員會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 시작했습니다

世界佛教高僧團人名辭典

세계 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1인 A4용지 1장 분량 소개  
세계 고승단 인명 사전 편찬 진행중입니다.

법하께서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 500인. 법왕청 및 승왕청 내각 580인  
자랑스런 불교계 고승단 큰스님 총 1080인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심을 모든 스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불교사의 영광이요 불교계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개별지도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원광식 주철장은 ... 1942년 출생해 1960년 원국진 선생에게 주철을 사사받았다. 1973년 성중사 제2대 대표 취임했으며 1976년 황수영 박사 등을 후원해 한국범종연구회를 발족했다.

를 살살이 뒤져 이 흙 틀과 같은 성분인 활석과 이암(泥岩)을 찾아내 작업에 성공했다. 일본이 빼앗아 간 신라 종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

그는 7년간 밀랍주조 공법에 매달려 1992년 일본 시네마현 광명사의 신라 종을 복원했다. 그 후 그는 신라 상원사 종, 선림원종, 청주 윤전동 출토 범종과 고려의 내소사종 등 20여개의 종을 재현했다.

원 대표의 광주 민주의 종, 충북 천년대종, 경북 도민의 종 등 수많은 종을 제작해 2000년 '대한민국 명장' 호칭을 얻었고 이듬 해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정확히 몇 개의 종을 만들었는지는 세어 보지 않았는데 사찰 의식에 사용되는 종 제작만도 8000여 개 정도 될 것입니다."

그가 복원한 종들은 진천군이 2005년 9월 개관한 종 박물관에 전시돼있다. 진천군이 원 대표의 열정을 높이 사 박물관을 지은 것이다.

남은 인생, 새 기법 개발에 매진할 것

"지나온 시간은 옛 장인들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라면 이제 남은 인생은 새로운 종 기법을 만들어내는 데 바칠 겁니다."

성종사는 태국 방콕에 지사를 세웠고 베트남 중국 대만 등에도 추가 지사를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와 대만 최대 범종을 수출하고 후속 계약을 진행 중이다.

원 대표는 "과거 방법에만 갇혀 있으면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 종을 찾겠느냐"며 반문했다. 원 대표는 "처음에는 일본에 수입이 나갔는데 일본의 특징은 100~200년 넘게 옛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었다"며 "일본은 시대마다 종 주조가 비슷한데 우리는 신라·고려·조선 시대 종 주조가 확연히 다르다. 이는 옛 선조들이 시대에 맞게 치열하게 주조법을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말했다.

"요즘은 종이 정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옛 주조기법은 잊지 않기 위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꼭 현대에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옛 것에 기반해 끊임없이 기법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원 대표는 당시 기법 연구 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했



성종사 범종주조 장면.

다. 원 대표의 열정은 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 대표는 1970년대부터 황수영, 염영화, 이장무 박사 등을 지원해 범종연구회를 만들어 종소리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했다.

원 대표는 "당시에 초기 만들었던 종, 10년 지난 후 만든 종, 30년 지난 후 종소리를 들으면 천양지차"라며 "종 연구에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종 만드는데 '나'는 아직 젊다

최근 원 대표는 베트남, 대만 등 각 국가의 종모양을 고증해가며 좋은 종소리를 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원 대표는 "동남아 등지에는 모양과 별개로 소리가 좋지 않은 종이 많다"며 "이들 국가에서 기법을 전수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이어 "최근에는 밀랍에서 왁스 기법으로 바뀌었다. 직접 만든 공법도 5번 바뀌었다. 오늘 듣는 소리와 내일 듣는 소리가 다른 만큼 더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부르고 등 따지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72살인데 지금도 직접 공장인부들과 어울려 종을 만들고 시원하게 꼭차 한잔 걸칩니다. 제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에요. 전 아닙니다. 놀 시간도 없기에 아플 시간도 없어요. 지금도 팔팔합니다."

원 대표는 청담, 고암 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과 인연을 쌓아왔다. 원 대표는 자신의 실력 외에도 스님들이 "종은 원광식, 성종사"라고 신뢰해 주었기에 그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원 대표는 "평생을 종과 함께 살아왔지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종소리에겐 항상 멀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겸손을 표했다.

"종교를 초월해 산사에서 종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가 없는 이들의 마음에도 와 닿는 소리가 불교의 종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에 와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종소리를 남기는데 여생을 바칠 것입니다."

꾸밈없이 그의 말소리가 그토록 그가 만들고 싶어 하던 마음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은은하게 들려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천에 위치한 종박물관 전경. 원 대표가 명예관장이다.

전법일기

삼존불 보물 지정

얼마 전 우리절에 아주 기쁜 일이 생겼다. 대웅전의 불상과 복장에서 나온 경전이 보물 제1801호와 제1802호로 각각 지정된 것이다.

보물 제1801호의 정식 명칭은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인데, 삼존불과 각각의 후령통, 발원문, 다리니 등 10건 129점의 유물이 해당되고, 보물 제1802호인 '...삼존좌상 복장전적'은 1395년에 조성된 목판에서 인출한 <인전안목> 등 네 권이 해당된다.

문화재 지정 과정을 소개하려면 5년여 전의 일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처음 이 절에 와서 인수인계를 할 때 전임 주지 스님이 말하기를 부처님 얼굴이 갈라져 있으므로 개금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봐도 개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불사를 시작하지 않고 천수다라니 기도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만 1년이 지나자 신도들이 먼저 개금불사를 하지 않을 거냐고 채근했다. 시절인연이 도래했다고 생각한 나는 그제서야 모연문을 만들고 신도님들의 마음과 정제(淨財)를 모았다.

몇 사람의 개금장이를 만나보았더니 전통 방식으로 개금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야 하는데 절에 작업실을 만들어 조건을 맞추는 방법도 있고, 이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공방으로 불상을 이운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다. 나는 공방으로 옮길 생각으로 복장유물을 먼저 확인하기로 했다.

당시 우리절은 창건한 지 40년 남짓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어딘가에서 모셔온 불상일 것이고, 불상을 옮겨 오는 과정에서 복장유물이 사라졌을

사격 높아지니 포교도 다양



그림·박구원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보았다. 그래서 복장유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불상의 형태로 조성연대를 추정할 수 문화재 지정절차를 밟을 요망으로 최고의 불상 전문가를 찾았다.

2010년 4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불상을 보였더니 "1650년 이쪽저쪽 10년 사이에 조성된 것 같다"며 "발원문이 나오면 보통급이고, 발원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방문화재는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해 6월, 문교수를 다시 초빙하여 복장을 열었는데 조성된 이후 단 한 번도 복장을 열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다. 놀랍게도 복장에서는 1647년에 조성했다는 발원문과 함께 60여 권의 경전이 쏟아졌다.

그해 10월에는 문 교수가 운영하는 한국미술사 연구소 연구자들이 실측조사를 벌였으며, 세 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 교수는 2010년 12월에 발행한 <강좌 미술사> 제35호에 논문을 실었다. 나는 이 논문과 문명대 교수가 써 준 '문화재 조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대구 달서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정절차에 들어갔다. 이 신청에 의거하여 2011년 3월에는 대구시 문화재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나눴다.

2012년 11월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7명이 방문하여 한꺼번에 불상과 복장유물, 경전을 조사하였고, 이 조사를 근거로 2013년 2월 중순에는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2점의 보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말일에 열린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의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를 하였고, 4월 29일 관보에 보물 제1801호와 제1802호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만 3년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지정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뭉뚱이 기뻐다. 지금도 내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다. 보물을 두 점이나 가진 문화재사찰이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한 것 높아진 위상으로 더 다양한 포교불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지었다가 부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일도 벌리고 저 일도 벌린다.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이 조성된 지 366년이 지난 오늘,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지금 여기에서 꽃을 피우라고.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Advertisement for Chanduk products including various types of lanterns and lamps. It features images of different models like '오색 민등', '칼라몬카시등', '공단등', '펜스대장전등', '주름등', '영가등', '가람영등', and '왕정기전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동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계는 범당 연동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동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운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Table comparing LED bulb specifications: Type, Power Consumption (10W vs 2W), Efficiency (10 lm/w vs 50 lm/w), Price (2146 won vs 429 won), and Lifetime (30,000 hours).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영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 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